

이 대표의 '몸통 바퀴치기' 무한도전

태평로



황대진
논설위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2014년 6·4 지방선거 하루 전날, YTN은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의 동생인 이 대표 형수 육설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적이 없었고 허위 보도였다.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 후배로 전화통인 7호 소유주인 배모씨가 YTN 동료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 대표는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분의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했다. 보도한 기사는 배씨에게 100만원을 받았지만 기사 작성 대가가 아니라 그냥 빌린 돈이라고 했다.

최근 드러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와 생산 및 유통 구조가 거의 같다. '윤석열 커피' 도 대선 3일 전 보도됐다. 여기서도 녹음 파일이 등장하고 보도 되자마자 이 후보가 전광석화처럼 페이스북에 올렸다. 제보자 신학립 전 언론노조위원장도 인터뷰 후 김만배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았지만, 책값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보도는 형수 육설로 궁지에 몰린 이 대표가 거꾸로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계기가 됐다. 작년 '윤석열 커피'는 대장동 비리 '몸통'을 이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려 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부정·비리의혹을 비틀어 상대방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데 이 대표처럼 능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며 정계 진출을 노리던 2002년에도 '몸통 바퀴치기'를 했다. 출마 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할 같은 당 김병량 성남시장 성남시장 때도 고비마다 가짜뉴스 '윤석열 커피'와 똑같은 구조 이 대표 의혹 상대방 것으로 둔갑 이런 '기술' 아직도 통하는 게 문제 이 타깃이었다. 이 대표는 김 시장의 분당 파크뷰 비리 관련설을 퍼뜨리기 위해 KBS 피디에게 수원지검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그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옆에서 질문 내용도 알려줬다. 통화 후 피디가 검사 사칭 녹음을 그대로 보도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제3자가 방송사에 제보하는 식으로 하자"며 자신이 제보자인 양 연출하고 얼굴을 가린 채 테이프를 건네는 장면을 찍었다. 공범이 제3자로 둔갑한 것이다. 조작된 방송이 나가고 김 시장이 이 대표를 고소하자 이

대표는 무고라며 김 시장을 맞고소했다. 가짜 뉴스를 만든 장본인이 피해자를 무고 죄인으로 만들려 했다.

이 대표는 대선에 진 후 '대선 패배 책임자'인 자신을 '대선 패배 수습 책임자'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대표에 거꾸 출마했다. 자신이 책임질 일이 생길 때마다 정반대로 간다. 기자들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물으면 "국민의힘 공천 현금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고 묻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하느냐"고 답했다.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은 "이화영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한다.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다. 아무리 측근이라도 서슴없이 몸통 바퀴치기에 이용한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산 전체주의"를 언급하자 "공산 전체주의를 막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습관이다.

이 대표는 소년공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가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 후보, 다수당 대표까지 됐다. 불우한 시절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존의 기술'을 익혔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기술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술이 통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 통한다는 게 문제다.

김준의 맛과 성 [155]

신안 대기점도 낙지초무침

갯벌이 좋은 서남해안 어촌의 어민들은 낙지 굶어기가 끝나면서 분주하다. 주낙을 만들고, 통발을 교체하고, 가래나 호미를 버리기도 한다. 어느 어벌(漁法)이든 물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 해와 달이 주는 바다의 시간을 어찌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갯벌과 바다가 내주는 대로 예의를 갖추고 잡는 것이 맨손 어업이다. 맨손 어업이란 맨손을 포함해 가래나 호미 등 단순한 어구를 사용해 어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 신안의 대기점도에서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 맨손 어업의 하나인 문음낙지 어법으로 낙지를 잡았다.

물때는 바닷물이 적게 들고 적게 나는 낙지 잡기 좋은 조금 물때다. 우선

장화를 신고 목과 발을 줄로 단단하게 묶었다. 폭폭 빠지는 갯벌을 잘도 걷는 어민을 겨우 따라다니며 낙지 서식굴을 찾았다. 갯벌에 많은 구멍이 있지만 그중 낙지 서식굴을 찾아내는 일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서식굴을 조심스럽게 헤치면 맑은 물이 고여 있다. 그곳에 굴의 방향을 표시하고 주변 흙을 떠서 덮는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문음을 만들고 위치를 표시한다. 이제 빠진 바닷물이 들기를 기다려야 한다. 물이 들 무렵 조심스럽게 문음으로 접근해 덮어 놓은 흙 무릎을 들추고 낙지가 보이면 재빨리 잡아낸다. 흑여 눈치를 채고 도망을 치면 굴의 방향으로 손을 쭉서 넣어 잡기도 한다. 문음낙지의 조업 과정이다. 물이 들면 낙지가 먹이 활동을 위해 입구로 나오



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음낙지는 낙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잡힌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의 필너지니 맛과 품질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잡아온 낙지를 회와 초무침으로 조리했다. 낙지회는 도마에 놓고 잘게 자른 후 참기름을 끼얹고 다양한 고명을 올려 먹는 낙지탕탕이다. 초무침은 살짝 데쳐서 마늘과 식초를 더해 채소와 무친다. 그런데 채소는 보이지 않고 낙지 지 더 맛이 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수산물 대신 "차라리 X을 먹겠다"던 민주당의 횡집 회식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10여 명이 지난달 30일 목포의 횡집을 찾았다고 한다. 이 대표 등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전에 단체로 횡집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며 수산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표는 식사 후 "참 맛있게 잘 먹었다"는 글씨를 써 주기도 했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주일째 되는 날이다. 이 대표는 다음 날 단식을 시작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단체로 횡집에서 식사를 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타격을 입었을 격정했던 우리 수산업을 반가운 소식이다.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고 희석시켜 방류되는 오염수가 한국 땅의 1650배에 달하는 태평양을 돌아 우리 바다로 진입하게 되는 4~5년 후에는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꺼림칙한 기분도 영향을 미친다. 이 꺼림칙한 기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다. 그런데 오염수로 큰일 날 것처럼 하던 민주당 사람들이 스스로 횡집을 찾아 식사를 했다. 이는 일각의 꺼림칙한 기분을 털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후쿠시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온갖 괴담을 퍼

뜨리며 평생 수산물을 입에도 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 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한마디 설명도 없이 횡집에서 회식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방사능 방사선 말이나" 구호를 단체로 외쳤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우리 먹거리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수산시장을 찾자 "세수 우려 너희나 먹으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차라리 X을 먹겠다"는 말도 했다.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수산물을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비유였다. 이 대표는 방류가 시작된 직후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라는 말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친일 매국 행위라는 주장도 했다. 그레 놓고 집회 전에 횡집을 찾아 식사한 후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서명까지 해주고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횡집 식사가 논란을 일으키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것과 수산물을 먹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우리가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한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괴담 선동을 하더니 그 뒷감당도 앞뒤 안 맞는 괴담식으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북한에 쌀 10만톤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공문에 결재해 놓고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라며 "서류를 가져오지 결재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자신이 추진했던 불법 대북 사업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측근에게 떠넘기고 스스로 결재한 서류조차 잘 모른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사업의 책임자로 직접 영입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수행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독자 방북을 추진했다고 이 전 부지사는 밝혔다. 당시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의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해 10월 두 차례 방북해 대북 사업과 이 대표 방북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사전 협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 합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표 방북 일정도 북과 논의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관련 기사를 수차례 공유하면서

직접 결재 뒤 "수고했다" 격려해놓고 '부지사가 몰래 했다'니

"이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함께합니다"라고 했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북한 김영철에게 대북 사업을 함께하자는 내용의 이 대표 명의 공문을 보냈다. 이 대표가 "육로로 평양에 가겠다"고 하자 북측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 다른 경로를 찾자"고 했다. 이후 북측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 대가를 요구했고 김 회장은 300만달러를 불법 송금했다.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임직원들은 모두 불법 대북 송금을 인정했고 북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이에 관여한 대북단체 대표도 혐의를 시인했고 법원의 유죄 판결도 나왔다. 버티던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이제 '이화영이 나 몰래 했다'는 말까지 한다.

이 대표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이화영씨가 혼자 뒤집어쓰기로 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화영씨 부인이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라리"고 소리치고, 변호인이 돌연 교체되고, 재판부가 피신청까지 하는 해괴한 일들은 모두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 결국 이 전 부지사는 자기 진술을 다시 번복했다. 그 전모가 짐작이 간다.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 없다니" 이름 없는 시민들 상식적 물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되자 많은 국민의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모금을 개시한 지 이틀 만에 4000여 명이 5억원 넘는 돈을 보냈다고 한다. 올해는 이 전 대통령 서거 58주년이다.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 접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름 없는 평범한 시민 수천명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이승만 기념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은 최근까지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두고 "독재 정치의 부활"이라며 반대했다. 집권 연장 시도라는 이 전 대통령의 과오만 들춘 것이다. 오늘 한국인의 삶 전체가 이 전 대통령의 업적 위에 있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채택, 토지 개혁, 교육 제도 등 나라의 기본 틀을 그가 만들었다. 김일성의 6·25 남침에서 나라를 지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대한민국의 태도를 마련했다. 위대한 업적이다. 역대 대통령도

두가 공과를 갖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처럼 과오만 의도적으로 부각된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60여 년 전 '이승만 하야'를 외쳤던 4·19 혁명 주역들은 최근 이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이승만의 과오뿐 아니라 공을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건립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 아들 5명도 함께한다. 이 자체가 국민 통합이다. 많은 시민의 생각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역 정부 예산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의 70% 정도인 320억원을 국민 모금으로 채우고 나머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로 했다. 온 국민이 동참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다.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기념관 건립 과정 자체가 역사적 화해와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재명이 정치범·양심수?... 돈 냄새 펴떨나는 파렴치 범죄 혐의자일 뿐

이재명의 집요한 지연전술... 정치범·양심수 형세 역겹다 | '정치탄압'이란 민주당 친명파와 개발... '진보' 아니라 '반동'

'단식'인지 '단식쇼인지'

이재명이 검찰 수사에 맞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를 벌이며 온갖 지연전술을 다 쓰고 있다. 참 집요하고 악착스럽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이재명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는 물음이다. 그는 정치범인가? 그는 마치 정치범이라도 된 듯 행동한다. 그러나, 정치범? 예!~ 정치범은 무슨 정치범이냐. 대장동 의혹 등은 그저 한낱 파렴치 혐의일 뿐이다. 돈, 돈, 돈, 돈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범죄 혐의.

양심수란 예컨대 어떤 것인가?

엔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정치범 또는 양심수란, 신념으로 말미암은 수인(囚人)을 일컫는다. 이재명은 무슨 신념으로 인해 구속수사도 아닌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나? 스스로 한 번 답해보기 바란다. 이재명, 혐의가 무엇이며?

이 정도는 돼야 정치범·양심수

정치범 또는 양심수란 이런 것이다.

1976년 3월 1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3·1절 57주년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민주구국선언문>이 낭

독되었다. (3.1 민주구국선언문)이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과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정이다. 다가오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시키고 있는가?"

서명자는 윤보선·김대중·함석헌·이우정·정일형 등 10명. 이 인사들은 그날 밤부터 일제히 검거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지법 대법정에 서는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법원 후문 밖 서소문로에서는 피고인 부인들이 단정한 한복들을 차려입고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했다.

필자는 이 광경을 건너편에 있는 <중앙일보> 사옥 10층 논설위원실 창문을 통해 환히 바라보았다. '저항하는 약자'의 미학적·윤리적 아우라가 있었다. 그만큼 '유신이나 반(反)유신이나?'의 대결은 치열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들은 잡혀갈 것을 뻔히 내다보고서 선언문을 발표한다. 정권은 그것을 내란행위로 몰아간다. 피의자들은 그것은 내란이 아니라 양심의 표현이었다고 진술한다. 당국은 내란죄를 억지로 자백시키려 무리를 한다. 재판에선 당국이 의도한 대로 광판 유죄가 선고된다.

이재명 사건의 의문점

이미 50년 전 일이었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이재명에게 알려주려 이른다. 정치범이란 적어도 그쯤 되어야 정치범이랄 수 있다. 아무나, 함부로 정치범 되는 줄 알았나, 영?

정치범이 되려면,

- 탄압당해야 하고
- 비폭력적으로 반항해야 하고
- 그러다 잡혀가고
- 부당한 수사와 엉터리 재판을 받고
- 보편적 공감을 받아야 한다.

이재명, 이에 해당하나?

그러면서 이재명 사건은 여러 다른 측면에서 사람들의 아하게 만든다.

◎ 이재명의 두둑한 됴됨이다. 정치범도 아니고 못 되면서, 정치범 형세하는 그 비위가 놀랍다.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손톱만큼도 겸연쩍어하는 기색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 그런 그를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이우정 정일형 등 시듯 하는 친명파와 '이재명 팬덤'이 너무 괴이적이다. 집단과 진영에 묶였더라도 어느 정도다. 거기엔 개인적 지성, 양심, 용기라는 것도 없나? 없다면 이미 망한 동네다. 그게 반동이지 무슨 진보?

◎ 신중을 신중을 기하려는 그 고충을 모르지 않으나, 검찰은 또 왜 그렇게 이재명 하나 번쩍하고 잡아넣지 못하고 이토록 오래 끌었는지,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고 못하겠나! 속 터져 어디 살겠나?

양심이나 파렴치나

오늘의 싸움은, 자유민주 체제하의 보수·진보 다툼도 아니고 여야 갈등도 아니다. 인간 세상 최소한의 수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 문명사회 최소한의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질(資質)이 살아남길 기원한다. 이념도 말고 정치도 말고 경제도 말고.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더보기

윤대통령-박민사 원희룡-한동훈 장관 처럼 싸워라... 국힘, 보고 있나?

김민배-신학림, 가짜뉴스로 대선 공작-운동권, '악마화' 됐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9월 11일 게재 되었습니다.